

사건기자의 따짓

변치 않는 사랑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작은 반지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한때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 전과자가 된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며 새롭게 태어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전만 해도 교도소를 드나들며 꿈도 없이 험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보통사람보다 더 행복한 제 2의 삶을 힘차게 꾸려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최근 광주시 광산구 무등웨딩홀에서 열린 '23회 새생활 합동결혼식'이 남달랐던 이유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는 말, 상투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자면 결코 깨트리지 않겠지요.

한국갱생보호공단 광주지부가 마련한 이날 결혼식에 참석, '과거를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증언할 사람들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전해온 축의금품과 격려 메시지까지 들게 됐으니 거짓말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 만큼 변하지 않고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이 때는 아이들도 힘들다

- 1. 쌀 데다 또 싸도 “요즘 기저귀가 참 좋아”하면서 안갈아 줄 때.
2. “누굴 닮아 이렇게 못 생겼어”라며 꾸짖힐 때.
3. 아빠 엄마도 발음하기 힘든데 “작은할머니 해봐”할 때.
4. 아무리 빨아도 엄마 젖이 나오지 않을 때.
5. 아무 데서나 밧기고 기저귀 갈 때.
6. 가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을 미끼로 걸어 보라고 꼬실 때.
7. 자꾸 웃으라고 억박지를 때.

▲공들의 힘겨루기

운동장에 야구공 그리고 축구공, 농구공, 럭비공이 있었다. 공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시열을 정하기 위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

농구공 : 내가 가장 무겁고 덩치도 크니까 내가 대장이다.

축구공 : 아니야! 내 가족이 제일 고급이니까 당연히 내가 대장이지.

럭비공 : 요즘은 개성 시대잖아? 너희들은 모두 개성 없어 난 동글지만 특이하게 생겼으니 당연히 내가 대장이지.

농구공 축구공 럭비공이 일제히 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본 야구공이 아니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야구공 : “아 너희들, 내 얼굴에 이 흉터자국 보이지?”

▲최고의 술 안주

한 식인종이 멀리 사는 다른 식인종 마을을 방문, 반가워 하는 친구와 함께 맛있는 소문난 고기집에 갔다.

메뉴판을 보니 모든 고기가 2만원인데 유독 정채인 고기만이 특선 메뉴로 표기되어 25만원인 것이다. 이를 이상히 여긴 식인종이 식당 주인에게 물었다.

“정채인 고기는 금가루라도 뿌렸습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비싼거지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말했다.

“깨끗하게 씻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래도 우적우적 씹다보면 입은 좀 아팠지만 술안주는 최고지요.”

▲주문

두 남녀가 연애 5년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부인은 처음 6개월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후 하루 걸러 확인하던 사랑은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년 뒤 남편과 한달에 한번도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 부인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 기도를 드렸다. 백일째 되던 산신령이 나타나 그녀에게 한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일 이시간 남편을 이 장소로 올라 오게 해라. 그러면 한가지 주문을 남편에게 알려줄테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주문을 외우면 너는 밤마다 즐거울 것이다”라고 했다.

부인은 남편을 다음날 새벽에 산에 올려보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변했고 신선 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전 남편은 주문을 외웠고 여자는 들으면 안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어떤 주문을 외우는지 몹시 궁금해 약속을 어기고 남편이 외우는 주문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외우는 주문 소리는 “이 여자는 내 여자 가 아니다”

▲흥분

어느 마을에 세명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악마가 나타나 세남자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길이가 합쳐서 40cm를 넘지 못하면 모두 없애버리겠다.”

세남자는 자신들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첫번째 남자는 17cm였고, 두번째 남자는 20cm였다.

그리고 세번째 남자는 3cm밖에 되지 않았다.

악마는 “그대 딱 40cm구나, 통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후 첫번째와 두번째 남자가 세번째 남자에게 말했다.

“이봐, 너 때문에 가슴 졸여 죽는 줄 알았잖아!”

그때 세번째 남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흥분하지 않았으면 다들 죽었어!”

뉴스퀴즈

94. '피겨여왕'인 이 선수가 1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왕중왕' 자리에 오른 것으로, '피겨 여왕'에서 당당히 '피겨 여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김연아 ②아사다 마오 ③캐롤라인 장 ④키미 미야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음 11월 9일 丙戌)

36년생 광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48년생 두드러라 그러면 멀리라. 60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72년생 풀의 향기를 찾아보라 마음이 평안하라. 84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07, 37

37년생 이왕 출발하면 앞만 보고 가라. 49년생 아침은 무럭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61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73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오히려. 85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05, 34

38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장불화는 피하라. 50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실수가 생긴다. 62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74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08, 30

39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라. 51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3년생 걱정을 버려 생각했던 걱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야. 75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11, 25

40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2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4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읽는다. 76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17, 26

41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도 말라 맹목이 될 것이다. 53년생 다부면 손재주 양보하면 득이 된다. 65년생 지금은 고요하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7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금이 많이 된다. 행운의 숫자: 03, 38

42년생 불필요한 구애로 파소비가 있을 수 있다. 54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다. 66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8년생 돈은 생키나 소비가 크니 절제하는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04, 33

43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라. 55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멀리 먼 손재가 크다. 67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79년생 대가를 바치지 말고 인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23, 26

44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6년생 심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8년생 마음이 변하듯 생키나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0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0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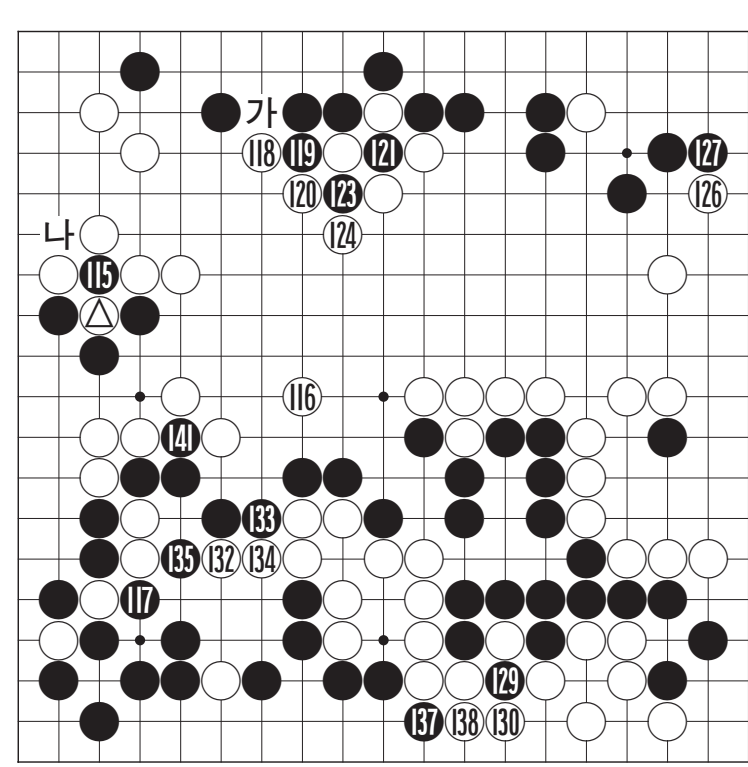
45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한 하루로 쉬어도 된다. 57년생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실사숙고해서 결정하라. 69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81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복하다. 행운의 숫자: 14, 40

46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8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70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하라. 82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12, 27

47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59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은 하리라. 71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3년생 슬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21, 3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88회 전국체전 시뮬거리를 찾는 흑 7보(115~141)

일반부 결승전 백 송홍석 6단 (경기도) 흑 김남훈 7단 (광주시)

현재 국면을 보면 집으로는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흑 집은 팽공 굳어있는 반면 백은 중앙이 워낙 두터워 살이 붙을 곳이 많다. 백이 즐겨 쓰는 국면인 것이다. 백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형세로 보면 된다. 김남훈은 뽕가 시뮬거리를 만들기 위해 흑 115로 따냈으나 백이 116으로 왼쪽의 얽은데를 보강 겸해서 슬쩍 지키는 데도 백 집이 상당히 불안할 조짐이다. 송홍석은 골인지점을 코앞에 두고도 흥분하는 기색도 없이 백 118로 제차 흑 모양을 추궁하며 중앙을 키워 간다. 이런 곳은 흑이 '가'로 받아 주는 것이 정수지만 지금은 뽕가 변

바둑소식

박영훈, GS칼텍스배 역전 우승

박영훈 9단이 17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배 도전 5번기 최종국에서 이세돌 9단을 275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종합전적 3승2패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초반 우세한 포석으로 시작한 박영훈은 중반 한 때 이세돌에게 두터움을 내주며 혼전에 빠져들기도 했으나 적절한 사석작전으로 주도권을 되찾은 뒤 완벽한 마무리로 승리를 낙였다. 도전기 또는 결승전에서 2연패 뒤 3연승한 사례는 국내 바둑사상 박영훈이 13번째. 이날 우승으로 박 9단은 후지쓰배와 기성전에 이어 3관왕에 올랐으며, 전기 대회 우승자였던 이세돌은 6관왕으로 올해를 마감하게 됐다.

굿모닝 잉글리쉬 <1057> Are you going to the Hyatt Regency Hotel? 하이아트 호텔로 가십니까? A: Are you going to the Hyatt Regency Hotel? B: Yes. How much is the fare? A: It's about 18 dollars. B: Here you are. Keep change, please. A: Thank you, Sir. B: You're welcome. A: 하이아트 호텔로 가십니까? B: 네, 요금이 얼마죠? A: 18달러쯤 될 겁니다. B: 여기 있습니다. 잔돈은 가지세요. A: 감사합니다, 손님. B: 뭘요. \* fare : 요금 <cf.> fee=비용 \* How much is the fare? = How much is it?

오하오우 니혼고 <1057> デジタルムビ持(も)って行(い)くね。 디지털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갈게. A: 今度(こんど),温泉(おんせん)に行(い)こう。 B: じゃ、デジタルムビ持(も)って行(い)くね。 A: あ、いい感(かん)じ。 B: たくさん,撮(と)ろう。 A: 이번에 온건 가져. B: 그럼, 디지털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갈게. A: 와, 좋는데 B: 많이 찍자! デジタルムビ: 디지털 무비 카메라 温泉(おんせん): 온천 持(も)って行(い)く: 가지고 가다 感(かん)じ: 느낌

니하오 쑹구위 <34> 你会做什么运动? 너 무슨 운동 할 줄 아니? A: 你会做什么运动? Nǐ huì zuò shénme yùndòng? 너 무슨 운동 할 줄 아니? B: 我会打网球。 Wǒ huì dǎ wǎng qiú. 내가 테니스 칠 줄 아냐? A: 你打得好吗? Nǐ dǎ de hǎo ma? 너 잘 치니? B: 特别好。 tèbié hǎo. 특별히 좋아. A: 너 무슨 운동 할 줄 아니? B: 테니스 칠 줄 아냐? A: 잘 치니? B: 아주 잘 치. 运动 [yùndòng] 운동, 운동하다 会 [huì] 할 줄 알다 特别 [tèbié] 특별히, 아주

한자 이야기 <674> 識字憂患(식자우환) 알 식,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 식자우환(識字憂患)은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도리(道理)를 알고 있어 오히려 불리(不利)하게 되는 경우나,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은 경우를 비유한다. 삼국지에서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을 얻기 전에는 서서(徐庶)가 군사(軍師)로 있으면서 조조(曹操)를 많이 괴롭혔다. 조조는 어떻게 해서든 서서를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 그가 흠자이며, 그의 어머니가 위나라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불러들이려는 계책을 세웠다. 하지만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衛夫人)은 학식이 높고 의리를 아는 여장부여서 오히려 한 군주를 잘 섬기라고 아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 조조는 모사(謀士) 정욱(程昱)의 계책대로 위부인의 필체를 흉내내어 급히 위나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서서에게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 보고 위부인은 깜짝 놀라 깨닫을 뻔했으나,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자신의 필체를 본뜬 가짜편지 때문이었음을 알고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여자가 글자를 아는 게 근심거리를 부르는 원인이 되는구나(女子識字憂患). (三國志) 여기서 식자우환이라는 말은 모르면 관참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었고, 속담으로는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도 한다.